

## 류현진 '잭팟' ... 4년 8천만 달러에 토론토행

류현진(32)이 메이저리그(MLB) 진출 7년 만에 자유계약(FA) 잭팟을 터트렸다.

지난 23일 'STN스포츠'에 따르면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연간 2,000만 달러를 전액 보장하는 조건에 4년 FA 계약을 체결했다. 류현진과 토론토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는 즉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의 잭팟은 올 시즌 중반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계약 기간과 총액이 1억달러(약 1,164억원)를 넘기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FA를 앞둔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찍었다. 올스타전도 첫 출전할만큼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번 잭팟은 류현진이 지난해 FA 시장에 도전하지 않고 LA 다저스의 켈리파잉 오퍼(원구단이 FA 선수에게 제시하는 1년 계약안)를 수용한 것이 잭팟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결국 류현진이 자신의 진가를 성적으로 보여줬기에 가능했다.

잭팟은 터트렸지만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는 것이 류현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2015년과 2016년 약 2년간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과 재활에 시간을 허비했다. 2017년에도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3개월 정도 휴전 상태에 빠졌었다.

캐나다 최다 발행 부수 신문 토론토 스타는 류현진의 이러한 단점을 지적하면서 "토론토는 류현진이 합류하면서 선발진에 있어 중단 기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깨 부상을 당한만큼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류현진은 스프링캠프에서 완벽한 몸 상태로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 타자를 병행한 내셔널리그가 아닌 투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아메리칸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과 부상 위험도는 줄었지만, 쉬어 갈 수 없는 타선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이 겹칠 경우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구성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골프팬 최근 10년 가장 기억 남는 대회는 '우즈의 2019 마스터즈 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올해 마스터스 우승이 최근 10년간 열린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 가운데 팬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대회에 선정됐다.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가 이날 발표한 '최근 10년간 열린 40개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팬들의 기억에 남는 대회 10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고의 메이저 대회로는 우즈의 메이저대회 통산 15승째인 2019년 마스터스가 선정됐다.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째 우승이 없던 우즈는 지난 4월에 열린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그린 재킷을 걸치면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골프 팬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대회로 이전의 여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2위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의 우승으로 끝난 2014년 PGA 챔피언십이 뽑혔다. 당시 매길로이는 필 미켈슨,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 헨릭 스텐손(스웨덴)과 함께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쳤다. 마지막 라운드 15번홀

까지 매길로이와 미켈슨이 공동 선두, 파울러와 스텐손이 1타차 공동 3위로 추격중이었다. 16번 홀에서 미켈슨이 한 타를 잃고 공동 2위로 내려갔고, 매길로이는 17번홀 버디로 공동 2위권과의 격차를 2타차로 더 벌리면서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위는 2010년 마스터스였다. 이 대회에서는 미켈슨이 자신의 통산 세 번째 '그린 재킷'을 걸쳤다. 우즈는 2009년 11월에 불거진 '섹스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출전해 공동 4위에 입상했다. 당시 대회에서는 코리안 듀오인 최경주(49·SK텔레콤)와 양용은(47)이 각각 공동 4위와 공동 8위에 입상했으며 은퇴한 재미동포 앤서니 김도 단독 3위에 올라 한국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4위는 스텐손과 미켈슨이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던 2016년 브리티시오픈이 차지했다. 5위는 버바 왓슨(미국)이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거둔 2012년 마스터스가 뽑혔다. 당시 대회서 왓슨은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과 연장 2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린 재킷을 걸치는데 성공했다.

## 리버풀, 일본 계정서 전범기 이미지 게시

리버풀의 일본 계정에서 전범기 이미지가 또 등장했다.

지난 22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리버풀은 이날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 결승전에서 플라멩구(브라질)에 1-0으로 승리하며 클럽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리버풀은 연장 전반 9분 피르미누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 후 리버풀 일본 계정은 한 이미지를 게시했는데 전범기 모양이 등장한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지구 모양과 클럽 월드컵을 들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전범기가 그려진 것이다. 클롭 감독 뒤로 전범기에 있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이 형상화됐다.

리버풀 일본 계정이 올린 이미지에 리버풀 공식 계정도 '좋아요'를 누르며 사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일

본 공격수 미나미노 타쿠미를 영입한 리버풀은 공식 사이트에 전범기 이미지를 올렸다.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 IP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리버풀이 전범기를 비판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진심어린 반성이 아니라 어린 아이 달래듯 사과문을 올렸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자 그대로 '폼수 사과'라는 것이다.

리버풀은 과거 유스 선수가 전범기 모자를 쓰고 나오자 빠르게 대처했고, 케이타의 전범기 문신도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며 수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팬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스포츠매체 ESPN은 "한국 팬들이 리버풀에 분노했다"면서 "전범기는 과거 일본 제국의 깃발로 군국주의와 탄압의 상징이었다"고 전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